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대한 공감, 자기자비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

도영주¹, 안진영², 장희경^{1,2*}
¹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²경상국립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toward Empathy, Self-Compass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Young-Joo Do¹, Jin-Yeong Ahn², Hee-Kyung Chang^{1,2*}
¹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자기자비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G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175명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2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비판적 사고성향($\beta=.62, p<.001$)이었으며, 공감($\beta=.14, p=.021$)이 두 번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F=36.24, p<.001$), 48.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판적 사고의 추론과정과 공감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적 스토리텔링과 사례 중심 수업이 통합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empathy, self-compass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s from 175 student nurses at five nursing colleges in the G province, from 18th February to 18th May 202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analysis showed that competence in person-centered car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pathy, self-compass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competence in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ing student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62, p<.001$), followed by empathy ($\beta=.14, p=.02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about 48.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ompetence in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udents by developing a program that integrates clinical storytelling and case-based classes to improve both the reasoning process of critical thinking and the ability to empathize.

Key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pathy, Nursing Student, Person-Centered Care, Self-Compassion

*Corresponding Author : Hee-Kyung Chang(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hchang@gnu.ac.kr

Received September 16,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Revised November 11,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 패러다임이 질병과 치료 중심에서 개별적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자를 질병을 가진 환자보다는 고유성과 존엄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이 강조되고 있다[1]. 인간중심돌봄이란 개인의 선호도 및 가치, 요구를 존중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총체적인 돌봄을 말한다[2]. 인간중심돌봄을 제공 받는 대상자는 질병 치유와 관련된 혈액검사 결과의 개선뿐 아니라 통증감소,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4]. 더불어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한 간호사와 직원은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소진과 스트레스 정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미국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 인간중심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량은 임상현장에서 간호학부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 전에 충분히 육성되어야 한다. 돌봄현장에서 간호사가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함양이 강조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대한 연구는 Park과 Choi[7]와 Lim[8]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MaCormack과 McCance[9]는 인간중심돌봄 이론에서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위해 더 발전된 대인관계 기술은 인간중심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타인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읽어내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10]. 공감능력이란 본인의 관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지의 한 형태로서 타인의 정서적인 요소와 의미를 파악하여 타인의 내적 준거틀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11]. 특히, 공감능력을 지닌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되어[12], 대상자의 활력징후 안정화 및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간호대학생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면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훈련한다[14].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Park과 Choi[7]와 Kim[15]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인간중심

돌봄 역량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과 자신 및 타인의 정서 상태를 비판단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인지적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자비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16]. Neff[17]는 자기자비를 자신의 실수나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직면하여 그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감정 상태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정과 생각을 비판단적으로 그대로 관찰하는, 자신을 수용하는 개념이라 말하였다. 자기자비에는 자기 친절 및 자기비난, 보편적 인간성 및 고립, 마음챙김 및 과잉 동일시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17]. 자기자비는 자기에 대한 여러 방면의 통합적 이해 및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한다[17]. 자기자비가 개인의 부정적 사건의 충격을 완화했다는 연구가 있었으며[18], 의미 있는 관계 맺기의 경험은 자기자비 정도에 따라 인지적 공감 및 대인관 상호작용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되었다[19].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현장에서 환자 또는 임상현장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비를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으며 외적,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상대방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20]. 그런 면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현장에서 적응하고 환자에게 인간중심돌봄 제공할 때 자기자비를 이용하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발전되게 할 수 있다. 이에 유추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에게서도 자기자비와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확인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비판적 사고란 기존의 전제를 성찰하고, 추론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무엇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하는데 초점을 둔 성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21]로 정의된다.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요소인 기술과 정의적 요소인 마음의 습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마음의 습관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해당된다[22]. 간호사는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여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율성을 유지하여 정확한 판단을 세워 간호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23], 근거기반실무와 환자중심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감성지능, 자기성찰 및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8,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자기자비, 비

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인간중심돌봄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 5개 대학교 간호학과장의 허락을 받은 후, 간호학과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확인했을 때 유의수준(α)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f^2)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 수준인 0.15, 독립변수 8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요 표본수는 16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8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답변이 불완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75부가 최종 연구분석에 사용하여 검정력을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본인의 입원 경험, 가족의 입원 경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학업성취수준이었다.

2.3.2 공감(Empathy)

본 연구에서 공감은 Hojat과 LaNoe[24]가 개발한 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 척도(JSE-HPS)를 Kim과 Ahn[25]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판 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 척도(K-JSE-HPS)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관점수용 10개 문항, 온정적 돌봄 8개 문항, 환자입장에 서기 2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 3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Ah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다.

2.3.3 자기자비(Self-Compassion)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는 Neff[17]가 개발하고 Kim 등[26]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친절과 자기-비판이 각각 5문항,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및 과잉 동일시는 각각 4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다.

2.3.4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지적 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을 측정하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7]이 개발할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다.

2.3.5 인간중심돌봄 역량(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Suhonen 등[28]이 개발하고 Park[2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적 상황 7문항, 개인적 삶의 상황 4문항, 의사결정통제 6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onen

등[28]이 개발할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2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G도의 5개 간호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학교커뮤니티 등에 설문 링크로 연결되는 글을 게재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NAVER form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고 확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함으로써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 문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밝혔다. 본 온라인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양측검정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1세'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3.02세였다. 성별은 여자 151명(86.3%)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43명(24.6%), 4학년 132명(75.4%)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100명(57.1%), 본인의 입원 경험은 '있다'가 102명(58.3%), 가족의 입원 경험은 '있다'가 157명(89.7%)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26명(72.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years)	20-21	77(44.0)	23.02±4.70
	22-23	64(36.6)	
	≥24	34(19.4)	
Gender	Male	24(13.7)	
	Female	151(86.3)	
College year	3rd	43(24.6)	
	4th	132(75.4)	
Religion	Yes	75(42.9)	
	No	100(57.1)	
Own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02(58.3)	
	No	73(41.7)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57(89.7)	
	No	18(10.3)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26(72.0)	
	Unsatisfied	49(28.0)	

3.2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는 평균 5.26±0.85점이며, 하위영역 중 온정적 돌봄이 6.06±1.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점수용 5.60±0.89점, 환자입장에 서기 4.33±1.26점 순이었다. 자기자비의 전체점수는 3.20±0.56점이며, 하위영역 중 보편적 인간성/고립이 3.27±0.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음챙김/과잉 동일시가 3.18±0.63점, 자기친절/자기판단 3.15±0.66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전체점수는 평균 3.76±0.43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객관성이 4.09±0.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중성이 3.33±0.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전체 점수는 평균 3.85±0.56점이었으며 임상적 상황이 3.90±0.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삶의 상황이 3.76±0.7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차이

대상자 중 학년이 4학년의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가 3.90±0.53점으로 3학년의 3.70±0.6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8$, $p=.039$)(Table 3).

Table 2. The degree of empathy, self-compas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75)

Variables		Range of scale	M±SD
Empathy	Perspective taking	1-7	5.60±0.89
	Compassion care		6.06±1.24
	Standing in the patient's shoes		4.33±1.26
	total		5.26±0.85
Self-compassion	Self kindness/ Self judgment	1-5	3.15±0.66
	Common humanity/Isolation		3.27±0.58
	Mindfulness/ Over identified		3.18±0.63
	total		3.20±0.5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1-5	3.83±0.65
	Prudence		3.33±0.58
	Self-confidence		3.66±0.62
	Systematicity		3.67±0.66
	Intellectual fairness		4.05±0.58
	Healthy skepticism		3.75±0.60
	Objectivity		4.09±0.59
total	3.76±0.43		
Person-centered care	Clinical situations	1-5	3.90±0.60
	Personal life situations		3.76±0.72
	Decisional control		3.85±0.62
	total		3.85±0.56

Table 3. Differences in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M±SD	t/F(p)
Age(years)	20-21a	3.83±0.60	0.29(.743)
	22-23b	3.89±0.55	
	≥24c	3.81±0.48	
Gender	Male	3.90±0.46	-0.43(.667)
	Female	3.84±0.58	
College year	3rd	3.70±0.63	-2.08(.039)
	4th	3.90±0.53	
Religion	Yes	3.82±0.62	-0.72(.472)
	No	3.88±0.51	
Own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3.90±0.55	1.27(.204)
	No	3.79±0.58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3.87±0.54	1.44(.149)
	No	3.67±0.73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89±0.51	1.46(.148)
	Unsatisfied	3.74±0.66	

3.4 대상자의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공감($r=.34, p<.001$), 자기자비($r=.15, p=.048$), 비판적 사고성향($r=.6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과 자기자비($r=.24, p=.001$), 공감과 비판적 사고성향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5, p<.001$).

3.5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은 명목척도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 정도인 공차 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값이 2.0을 넘지 않고(1.000-1.231), 공차 한계가 모두 0.1 이상(0.35-1.00)이며, 상관계수도 .80 이하(.15-.66)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판적 사고성향($\beta=.62, p<.001$)이었으며, 공감능력($\beta=.14, p=.021$)이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F=36.24,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48.8%였다.

즉,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pathy, Self-compas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75)

Variables	Empathy	Self-compas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r (p)	r (p)	r (p)	r (p)
Empathy	1			
Self-compassion	.24 (.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 (<.001)	.29 (<.001)	1	
Person-centered care	.34 (<.001)	.15 (.048)	.66 (<.001)	1

Table 5. Factors affecti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75)

Variables	B	β	t	p
College year	.98	.07	1.32	.187
Empathy	.09	.14	2.33	.021
Self-compassion	-.07	-.70	-1.17	.24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81	.62	9.92	<.001
R ² =.460, Adj. R ² =.488, F(p)=36.24(<.001)				
Durbin-Watson=2.040, Tolerance=0.35-1.00, VIF=1.000-1.231				

4. 논의

간호대학생들의 학부과정 중 필수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역량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위한 질 높은 간호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연구한 Lim[8]의 연구에서는 4.01점, Park과 Choi[7]의 연구에서는 3.8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보통 이상으로 판단된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임상적 상황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삶의 상황이 3.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간호실무 발전방향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간호사 교육 및 간호학부의 교육과정이 의학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임상현장에서 투약이나 처치와 같은 처방 수행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30]. 그래서 환자의 개개인에게 맞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공감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연구한 Lim[8]의 연구에서는 3.72점, Kang과 Kim[31]의 연구에서는 3.77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타 학과의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치위생과 학생들은 3.46점[32], 치기공과 학생들은 3.48점[33], 방사선과 학생들은 3.61점[34]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비판적으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특성과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중심학습이나, 사례학습, 시뮬레이션학습, 개념지도 교육 등의 학습법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공감능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26점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을 측정한 Kim과 Ahn[25]의 연구에서는 5.80점, Kim 등[35]의 연구에서는 5.44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정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온정적 돌봄이 6.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입장에 서기가 4.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Kim과 Ahn[25]의 연구와 Kim 등[3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환자의 경험을 자신의 감정으로 해석, 이해하는 것은 양호하지만 스스로 환자의 상황에 투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고도의 감정적 상황 속에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초연해짐으로써 안전하게 분리된 사적 공간을 확보하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태도인 감정적 분리[36]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감정적 분리는 임상현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끌어들이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공감의 태도로 해석된다[37].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감정적 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명상이나 마음챙김도 비교과 과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의 자기자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를 측정한 Kim과 Kang[38]의 3.12점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상간호사들의 자기자비를 측정한 Kim과 Han[39]의 연구에서는 3.46점, 보훈병원 간호사는 3.22점[40]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자비 점수가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에 비해 점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 환자가 고통받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곁에서 목격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을 수용하고 돌보는 데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3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겪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면서 자신을 수용하며 돌볼 수 있도록 자기자비의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를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보다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Lim[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아직 임상실습의 경험이 적은 3학년보다도 4학년 학생들이 환자와 대면하여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며 실습집담회와 토론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지속적인 자기성찰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공감, 자기자비, 비판적 사고성향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를 본 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와 비판적 사고성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41,42]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Brookfield[43]는 비판적 사고의 과정에서 감정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그 상황의 분석과 의사결정 및 행동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간호대상자의 개별적 상황과 감정에 대한 정보를 의사소통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를 동원하고 인간중심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공감능력이었다.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은 간호대학생뿐 아니라 중환자실 간호사[44]나 요양보호사들[45]의 인간중심돌봄 역량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이나 상황을 이해하여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생이 환자나 고통받는 개인이 되어보는 경험을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임상시뮬레이션 교수학습법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세 번째 변수는 자기자비였다. 자기자비와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자신에게 친절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며 행동하고, 비판단적 관점을 유지하는 자기자비[16,17]와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인 인간중심돌봄 역량[9]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중심돌봄을 적용하기 위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논리적 영역과 감정적 영역이 인간중심돌봄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며 분열되지 않는 융합 교육의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간호대상자 개인과 맥락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간호추론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수행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 Chang과 Do[46]의 연구에서 간호대상자의 질병경험과 전체적인 임상상황을 담은 사례와 역할극을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문제중심학습 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모듈이 인간중심돌봄 역량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지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자기자비와 인간중심돌봄의 관계를 본 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어려우나, 자기자비의 하위영역인 보편적 인간성과 마음챙김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필요한 임상적, 개인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자기자비는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자기자비가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여러 가지 통합적 이해 및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직접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 공감할 수 없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방법을 이용해 다른 변수들의 간접효과 및 매개효과와 같은 경로를 밝히는 과정을 거쳐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구조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상황으로부터 정보를 모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21]. 이때 공감능력을 통해 간호대상자의 경험과 맥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간호학적 배경 지식과 공감이 통합되고

추론과 비판적 분석이 합쳐진다고 볼 수 있다[46]. 이에 비판적 사고와 공감이 함께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중심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이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이들 변수는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48.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그리하여 여러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역량과 실제 수행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인간중심돌봄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비판적 사고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추론해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의 맥락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역할극, 표준화된 환자 활용, 상호 촬영과 피드백을 통한 의사소통 정련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Lee, K. Jo, "The attitude of nurses in person-centered nursing: a Q-methodologic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21, No.1, pp.54-71, 2018.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8.21.1.54>
- [2]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30, No.1, pp.6-15, 2012.
DOI: <https://dx.doi.org/10.1177/0898010111412189>
- [3] L. E. Olsson, U. E. Jakobsson, K. Swedberg, I. Ekman, "Efficacy of person-centred care as an intervention in controlled trials—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2, No.3-4, pp.456-465, 2013.
DOI: <https://dx.doi.org/10.1111/jocn.12039>
- [4] P. Rose, P. Yates, "Patients' outcomes related to person-centred nursing care in radiation oncology: A case study",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Vol.19, No.6, pp.731-739, 2015.
DOI: <https://dx.doi.org/10.1016/j.ejon.2015.05.008>
- [5] H. Sagong, G. E. Le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7, No.4, pp.309-318, Dec. 2016.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6.27.4.309>
- [6] Institute of Medicine.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bridge to quali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 [7] E. H. Park, J. S. Choi, "Attribute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3, No.5k, pp.511-519, 2021.
DOI: <https://doi.org/10.1002/nur.22062>
- [8] M. Lim,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8, No.3, pp.35-43, 2020.
DOI: <https://doi.org/10.22678/jic.2020.18.3.035>
- [9] B. McCormack, T. V. McCance,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person-centred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6, No.5, pp.472-479, 2006.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6.04042.x>
- [10] S. Kang,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35-43,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1.035>
- [11] R. J. Campbell, *Psychiatric dictionary* (8th ed.), p.70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12] S. Brunero, S. Lamont, M. Coates,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Vol.17, No.1, pp.65-74,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40-1800.2009.00482.x>
- [13] J. Olson, E. Hanchett, "Nurse-expressed empathy, patient outcomes, and development of a middle-range theory", *Image-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 J. Lee, K. Jo, "The attitude of nurses in person-centered

- Vol.29, No.1, pp.71-76, 1997.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1997.tb01143.x>
- [14] H. K. Chang, Y. J. Do, S. M. Han, B. R. Kim, "Relationships amo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empathy, mindful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Vol.29, No.2, pp.97-105, Jun. 2021. DOI: <https://doi.org/10.17547/kjsr.2021.29.2.97>
- [15] M. S. K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Medicina*, Vol.56, No.8, p.414, Aug. 2020. DOI: <https://doi.org/10.3390/medicina56080414>
- [16] J. R. Joeng et al., "The effects of counselors' self-compassion on empathy, self-efficacy and burnout with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counseling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2, pp.61-80, 2017. DOI: <https://doi.org/10.15703/kjc.18.2.201704.61>
- [17] K. D. Nef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Vol.2, No.3, pp.223-250, 2003. DOI: <https://dx.doi.org/10.1080/15298860309027>
- [18] M. R. Leary et al., "Self-compassion and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5, pp.887-904,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5.887>
- [19] K. H. Kim, H. K. Lee,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6, pp.83-107,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6.201512.83>
- [20] H. Y. Jang, Y. J. Lee, "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2, pp.77-83,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77>
- [21] R. H. Ennis, "A logical basis for measuring critical thinking skills", *Educational Leadership*, Vol.43, No.2, pp.44-48, 1985.
- [22] B. K. Scheffér, M. G. Rubenfeld, "A consensus statement on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9, No.8, pp.352-359, 2000.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001101-06>
- [23] K. Y. Kim, E.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7, No.2, pp.451-461, 2016. DOI: <https://doi.org/10.7465/jkdi.2016.27.2.451>
- [24] M. Hojat, M. LaNoue, "Explor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latent variable structure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5, pp.73-81, Apr. 2014. DOI: <https://pubmed.ncbi.nlm.nih.gov/25341215/>
- [25] J. S. Kim, S. H. Ahn,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s students for measuring empath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259-268, 201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8.24.3.259>
- [26] K. E. Kim, et al.,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3, No.4, pp.1023-1044, 2008. DOI: <https://doi.org/10.17315/kihp.2008.13.4.012>
- [27]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s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04.
- [28] R. Suhonen, et al., "Individualized care scale-nurse version: A Finnish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Vol.16, No.1, pp.145-154, 2010. DOI: <https://doi.org/10.1111/j.1365-2753.2009.01168.x>
- [29] E. H. Park, *Factor Related to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30] J. Y. Lee, S. Y. Pak,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5, pp.461-470, Dec. 2016.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461>
- [31] H. S. Kang, Y. Y. 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617-62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
- [32] H. K. Kim, J. H. Kim,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learning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9, pp.681-689,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9.681>
- [33] S. H. Yu, "The convergence relati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1, pp.95-101,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1.095>
- [34] S. M. Kwon, K. S. Chon, "Relationship of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radiolog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12, No.3, pp.359-366, 2018. DOI: <https://doi.org/10.7742/jksr.2018.12.3.359>

- [35] G. H. Kim et al.,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and empath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7, pp.451-465, 2020.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0.20.7.451>
- [36] A. Henderson, "Emotional labor and nursing: An under-appreciated aspect of caring work", *Nursing Inquiry*, Vol.8, No.2, pp.130-138, 2001.
DOI: <https://doi.org/10.1046/j.1440-1800.2001.00097.x>
- [37] H. Hong, "A psychometric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 student(K-JSE-HPS) and regressions analysis with listening style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9.
- [38] Y. M. Kim, H. S. Ka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Vol.12, No.2, pp.57-64, 2019.
DOI: <https://doi.org/10.37152/kmhs.2019.12.2.57>
- [39] Y. A. Kim, K. S. Han, "Work performance, anger management ability, resilience, and self compass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30, No.2, pp.110-118, 202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2.110>
- [40] B. R. Lee, S. H. Ahn, Impact of Self-compassion, Active Coping, and Passive Coping on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f Nurses at Veterans' Hospitals, *Journal of global health and nursing*, Vol.11, No.2, 112-122, 2021.
DOI: <https://doi.org/10.35144/ghn.2021.11.2.112>
- [41] S. K. Arli, et al., "Critical thinking and caring i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10, No.1, pp.471-478, 2017.
- [42] H. C. Pai, C. J. Eng,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aring behavior, and learning styles in student nurses", *Open Journal of Nursing*, Vol.3, No.2, pp.249-256, 2013.
DOI: <https://doi.org/10.4236/ojn.2013.32034>
- [43] S. D. Brookfield, The Concept of Critically Reflective Practice, In A. L. Wilson & E. R. Hayes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110-126.
- [44] S. Choi, "Factors affecting to the person-centered care among critical 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13, No.2, pp.36-44, 2020.
DOI: <https://doi.org/10.34250/jkccn.2020.13.2.36>
- [45] G. Y. Kim, H. Y. Jang,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among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3, No.1, pp.13-23, 2021.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1.23.1.13>
- [46] H. K. Chang, Y. J. Do, "Problem-based learning using digital storytelling: examining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8, pp.853-866,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8.853>

도 영 주(Young-Joo D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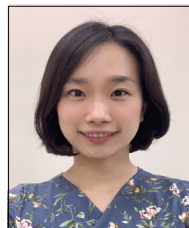
- 2019년 2월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9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9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노인간호, 인간중심돌봄, 간호교육

안 진 영(Jin-Yeong Ahn)

[정회원]



- 2020년 2월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2021년 10월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11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성인간호, 인간중심간호

장 희 경(Hee-Kyung Chang)

[정회원]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스트레스, 재활간호